

# ‘말레이시아 오픈 2연패’ 안세영, 새해 첫 대회 정상

결승서 왕즈이에 2-0 완승  
월드 투어 파이널스 복수전  
올해도 세계 1위 수성 순항

‘셔틀콧 여제’ 안세영(22·삼성생명)이 새해 첫 대회인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2연패를 달성하며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BWF(세계배드민턴연맹)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악시아타 아레나 부킷 자릴에서 열린 왕즈이(중국·2위)와 페트로나스 말레이시아 오픈 2025(슈퍼 1000) 결승에서 2-0(21-17, 21-7)으로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 오픈 2연패를 차지했다. 또 지난달 HSBC BWF 월드 투어 파이널스 2024 준결승에서 왕즈이에게 0-2(17-21, 14-21)로 완패하며 공동 3위에 머무른 아쉬움을 설욕했다.

안세영은 올해 첫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월드 투어를 순조롭게 출발했다. 안세영이 국제 대회 우승을 차지한 것은 지난해 11월 리닝 차이나 마스터스 2024(슈퍼 750)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안세영은 첫 번째 게임에서 앞서라뒤치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안세영이 지난 11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악시아타 아레나 부킷 자릴에서 열린 라차녹 인타논과 페트로나스 말레이시아 오픈 2025 준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AP/뉴시스

락하는 흐름에도 집중력을 발휘했다. 선제 실점으로 1게임을 출발한 안세영은 내리 세 점을 가져오며 곧바로 3-1 역전에 성공했다.

3연속 실점으로 곧장 3-4 역전을 허용한 안세영은 한 점을 만회하며 4-4 동점을 이뤘지만 다시 두 점을 더 내주며 4-6으로 끌려갔으나 다시 3연속 득점을 가져

오며 7-6 재역전을 이뤘다. 이어 한 점씩을 주고받으며 안세영이 8-7로 앞섰지만 왕즈이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안세영은 4연속 실점을 허용했

고, 또다시 리드를 내주며 8-11로 격차가 벌어졌다.

자칫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안세영은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했다. 무려 아홉 점을 연속으로 몰아쳤고, 17-11로 6점 차 리드를 가져오며 흐름을 완벽히 뒤집었다.

결국 흐름이 꺾인 왕즈이는 더 이상 추격의 동력을 마련하지 못했고 안세영은 이미 확보한 리드를 바탕으로 여유 있는 경기 운영을 선보이며 21-17로 첫 게임을 챙겼다.

안세영은 1게임 승리의 기세를 2게임에서도 이어갔다. 2게임 시작과 함께 5연속 득점을 가져오며 5-0으로 앞서간 안세영은 끝까지 왕즈이에게 연속 실점을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다.

7-2에서 다시 4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11-2로 격차를 벌인 안세영은 한 점씩을 주고받으며 13-4로 흐름을 유지했고, 한 점을 내줬으나 세 점을 가져오며 16-5로 두 자릿수 리드를 잡았다.

이어 한 점을 내준 뒤 다시 두 점을 가져오며 18-6으로 달아났고, 또한 점을 내준 뒤 이번에는 세 점을 내리 가져오며 21-7로 정상을 향한 압도적인 레이스를 장식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페퍼저축은행 선수단이 12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현대건설과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맞대결에서 공격을 성공한 뒤 기뻐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 페퍼저축은행, 창단 첫 3연승 질주

현대건설에 3-1 승리... 시즌 8승

올스타 브레이크에서 돌아온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한데 이어 IBK기업은행 알토스와 후반기 첫 경기도 승전보를 올렸고, 다시 현대건설을 잡아내며 창단 첫 3연승을 장식했다.

페퍼저축은행은 12일 경기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현대건설과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2차전에서 세트스코어 3-1(25-21, 13-25, 25-19, 26-24)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페퍼저축은행은 3연승을 질주하며 올 시즌 8승 12패(승점 24)를 기록했다. 페퍼저축은행이 3연승을 달린 것은 창단 후 처음이며 역대 최다 승리(종전 5승)와 승점(종전 17점) 기록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또 현대건설의 선두 등극도 저지했다.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15승 5패·승점 45)와 2점 차를 유지하고 있던 현대건설은 승리하기만 하면 선두를 탈환하는 상황이었지만 14승 6패(승점 43)에 머물렀다.

페퍼저축은행의 이번 승리는 우승 후보인 현대건설을 연파했다는 데서 의미가 깊다. 지난달 29일 안방인 광주 페퍼스타 디움에서 폴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며 승점 2점을 추가했던 페퍼저축은행은 이번에는 승점 3점을 온전히 가져오며 4위 IBK기업은행(11승 8패·승점 32)을 8점 차로 추격, 창단 첫 봄 배구를 향한 불씨를 살렸다.

페퍼저축은행은 테일러(24득점)와 이한비(20득점)가 44득점을 합작하며 맹활약을 펼쳤다. 공격 성공률도 테일러가 44.23%, 이한비가 43.59%를 찍었다.

박정아와 장위는 나란히 12득점을 만들어냈고 염어르형이 5득점, 박은서가 2득점을 보냈다. **한규빈 기자**

## ‘민상기·이재환 영입’ 광주FC, 경험과 패기 모두 갖췄다

민상기, 프로 16년차 베테랑  
이재환, 대형 최전방 유망주



광주FC는 중앙 수비수 민상기와 최전방 공격수 이재환을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1차 전지훈련지인 태국 코사무이에 합류해 기존 선수단과 본격적으로 손발을 맞추기 시작했다.

민상기는 안정적인 대인 수비와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프로 16년 차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비진을 이끌 수 있는 자원이며 톱패스와 숏패스 능력을 모두 갖춰 원활한 빌드업을 유도한다.

수원삼성 U-18(매탄고) 출신인 민상기는 2010년 프로에 직행하며 매탄고가 낳은 첫 K리거로 자리매김했다. 2013년 본격적으로 주전으로 발돋움한 그는 10년 넘게 원클럽맨으로 활약했고, 2022년에는 박건하 감독과 이병근 감독 아래에서 주장을 역임했다.



민상기



이재환

특히 민상기는 2021시즌과 2022시즌 ‘매탄소년단(매탄고+방탄소년단)’이라는 별명을 얻은 강현묵과 김태환(제주 SKFC), 정상빈(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 오현규(KRC 헥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며 ‘매통령(매탄고+대통령)’으로도 불렸다.

2023시즌 후반기 부산아이파크로 임대를 떠나며 프로 14년 차에 새로운 도전을 꾀한 그는 지난해 포항스틸러스로 이적했으며 K리그 통산 230경기에서 4득점 1도움을 기록했다.

민상기는 구단을 통해 “트렌디한 전술을 선도하는 광주FC에서 펼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시즌이 앞으로의 축구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최대한 많은 경기에 출전해 팀에 도움을 주

고 팬들에게는 기쁨을 드리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환은 공격 진영에서 파괴력을 자랑하는 최전방 공격수다. 191cm의 장신을 바탕으로 하는 연계 플레이가 우수하고,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드리블에 반 박자 빠른 슈팅까지 갖춰 완성형 자원으로 꼽힌다.

인천유나이티드 U-15(광성중)와 U-18(인천대건고)을 나온 이재환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21년 K리그 주니어 A조에서 전반기 득점왕(7경기 6득점)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고등학교 재학 후에도 그는 변성환 감독이 이끈 17세 이하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2023 AFC(아시아축구연맹) U-17 아시안컵 준우승에도 기여했고, 2024년에는 K리그 주니어 A권역 전반기와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득점왕을 거머쥐며 꾸준한 활약을 펼쳤다.

이재환 역시 구단을 통해 “광주FC에서 프로에 데뷔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공격 포인트를 10개 이상 기록하는 것이 목표다. 팬분들께 하루빨리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한규빈 기자**

## 광주FC, 내달 15일 홈서 수원FC와 새 시즌 개막전

새 시즌 K리그1 파이널A(6위 이상) 진출로 자존심 회복을 노리는 광주FC가 개막전에서 수원FC와 맞대결을 펼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하나은행 K리그 1 2025 정규 라운드(1-33라운드) 일정을 12일 발표했다.

올해도 아시아 무대와 K리그를 병행하는 광주FC는 다음 달 오후 4시30분 광주

축구전용구장에서 수원FC와 개막전을 치른다.

광주FC와 수원FC의 대전이 성사되면서 개막전부터 시도민구단 돌풍의 주역들의 지략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광주FC의 사령탑인 이정호 감독은 ‘주도권 축구’로 불리는 특유의 색채를 바탕

으로 2022년 K리그2 우승과 2023년 K리그1 준우승, 2024-2025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동아시아 2위(6차전 기준)를 견인했다.

반면 수원FC를 이끄는 김은중 감독은 부임 첫해인 2024시즌 K리그1에서 15승 8무 15패(승점 53)를 기록, 구단 사상 최다 승점과 승리 기록을 모두 경신했고 최고 순위 타이 기록을 이뤘다.

**한규빈 기자**